

근자 문양의 의장적 변천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the Aesthetical Change of the 𠄎 Shape

Author 장현덕 Jang, Hun-duk / 정회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건축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Abstract The 𠄎 shape which is used as an aesthetical feature for traditional architecture can be seen in the stair railings of the house shaped ceramic potteries in the Eastern Han dynasty(A.D. 25-220) but with the introduction of Buddhism, it has been widely used for the decoration of the sarira(small crystals of the cremated monks) case. After the shape was seen in the Yungang and Dunhwang grottoes mural paintings, the use of it has been expanded.

In Korea during the excavation of the Gyeongju Anapji which was the Eastern palace of the Shilla dynasty, a 𠄎 shaped wood which had been used as a handrail was found and this shape was also used in the railings of the Shilsangsa Baekjagam temple stone pagoda and lantern and in the sarira case excavated in the Songrimsa temple stone pagoda. In Japan, the Nara period(A.D. 710-794) when there were many cultural exchanges with the Korean peninsula, the handrails of the 2nd floor of the main hall of Hoyu-ji temple has a 𠄎 shape. This can be confirmed that this shape has been widely used as a design in Asian Buddhist architecture. Gilsangoonhae(吉祥雲海) which is the symbolic meaning of this shape means for long life and luck which had been used generally for the window designs of temples, palaces, and houses. In this study, it is giving the definition the beginning and the symbolic meaning of the 𠄎 shape which is being used from the ancient times until nowadays and the change of this shape used for window designs.

Keywords 만자문양, 길상운해, 창호
𠄎 shaped wood, Gilsangoonhae, Window design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우리나라 전통건축에서 의장적인 요소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𠄎자 문양은 삼국시대건물의 난간 등에 표현되기 시작하여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창호, 담장, 지붕 등의 의장적 요소로 널리 사용되어 통상적으로 만자문양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이 문양의 어원적 의미와 전통건축에 적용된 시대별 문양의 세부기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없어 그 연구 또한 미약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건축의 의장요소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는 𠄎자문양의 흐름과 변천에 관련되는 시대별 출토유물, 석조물 난간, 조선시대 건물 창호 및 지붕, 담장 등에 사용된 사례를 분석하여 시대별 흐름의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아울러 어원적 해석과 연관성이 있는 중국 고대건축 장식 요소로 궁궐, 원림, 민가 등에 폭 넓게 사용된 𠄎자문양의 시대별 흐름도 연구대상에 포함하여 그 변천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장의 특징적 요소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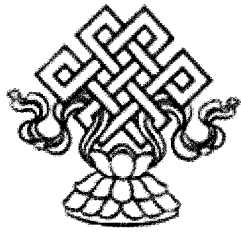
2. 𠄎자의 어원과 형태

2.1. 어원의 변천

𠄎자문양의 기원은 인도의 신 비슈누(Vishnu)에 있는 선모(旋毛)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의미는 성스러운 조짐이나 길상을 나타내는 덕의 모양을 뜻한다. 석가모니의 깊은 내용을 구상하였다는 점에서 일종의 만다라로 볼 수 있다. 𠄎자의 모양은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우만자(卍)와 왼쪽으로 도는 좌만자(卐)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인도의 옛 조각에는 좌만자가 많으나 중국, 한국, 일본에서는 卍이 구별하지 않는다.¹⁾ 또 중국에서는 그 의미를 화염문이 상승하는 상징으로 불교에서 사용되는 𠄎자는 불타의 “32상(三十二相)” 중의 하나로 보았다. 당나

1) 네이버백과사전, Doopedia 두산백과

라 무척천 시기에 그 음이 “만(万)”자로 되면서 “길상운해(吉相雲海)”의 의미로 상징화하여 인간에게 장수와 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뜻으로 해석하였다.²⁾ 그러나 고대 난간 등에 표현되는 시원적 卍字는 그 형태를 흠어 놓은 파만자 형태로 표출되었는데 이러한 모습은 삼국시대 우리나라 석탑 등에 표현되는 모습과 거의 같다. 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완자문양의 어원은 卍字를 “man”으로 발음하지 않고 중국어 발음인 “wan”으로 발음³⁾ 한 것에서 유래 되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卍字의 통상적인 발음에 따라 완자로 표기하였음을 밝혀둔다.



<그림 1> 비슈누의 슈리밧한

2.2. 우리나라 卍字문양의 시원

통일신라시대 유적으로 알려진 경주 신라 동궁과 월지(사적제18호)에서 1975년 출토된 난간 장식은 최고로 오래된 목부재 이다. 이 난간부재는 부식이 심하여 그 원형을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난간부재인 엄지기둥과 돌란대가 일괄유물로 출토되어 당시 호안 주변 건물의 난간에 쓰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난간의 세부수법은 살대가 수직과 수평으로 맞닿는 부분을 장부맞춤으로 끼웠고 45°로 만나는 모서리 부분은 연귀맞춤을 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난간은 통일신라시대 석탑인 실상사 백장암 3층석탑의 1층탑신과 2층탑신, 3층탑신의 4면에 잘 표현되어 있다. 그 세부적인 기법은 후기에 나타나는 난간 하부의 지방이 생략되고 난간 가운데의 동자주가 난간두겹대를 받치는 수법으로 띠장은 엄지기둥과 동자주에 끼이게 되어있다. 그리고 살대는 간살에 비해 비교적 투박하게 표현되었다. 또 석탑과 같은 권역에 있는 석등의 8각 중대석 각면에도 정교하게 난간을 표현하였다. 각 모서리에는 엄지기둥을 세웠고 2개의 동자기둥 사이에는 지방과 난간띠장 사이에 卍 형의 난간살대를 끼워 3조의 파만자 난간을 조각하였다. 띠장 위로는 양증맞은 동자주를 세우고 소로를 놓아 두겹대를 받치고 있어 통일신라 시대에 유행했던 난간기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또 팔공산 자락의 통일신라시대 송림사 전탑에서 출토

된 사리함 1층 기단부에도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난간이 설치되었다. 그 세부적인 기법은 각 모서리에 엄지기둥을 세우고 가운데에 2개의 동자주를 세워 이들 기둥 사이에는 卍 형의 난간살대를 엄지기둥과 동자기둥에 끼워 3조의 투각된 파만자 난간을 표현하였다. 동자주 위에는 작은 소로를 놓아 두겹대를 받치게 하였다. 통상적인 난간에는 살대 위에 난간띠장이 있지만 이 사리함 난간에는 생략되었다.

북한의 불일사지에서 출토된 금동5층탑 사리함에도 1층탑신에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난간이 표현되었다. 그 세부적인 기법은 각모서리에 엄지기둥을 세우고 그 가운데에 1개의 동자주를 세워 난간살대가 엄지와 동자기둥에 끼이도록 하였는데 송림사 전탑에서와 같이 난간띠장이 생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한반도의 卍字형 난간의 시원 (도록에서 전재)

안압지 출토 난간	실상사 백장암 석등
송림사 출토 금동 사리함	불일사지 출토 금동 5층탑

2.3. 일본 卍字문양의 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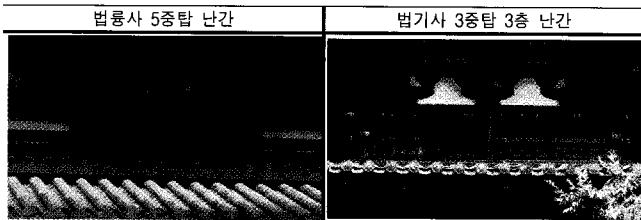
일본의 파만자 난간 사용은 고대 한반도 백제와 많은 문화교류가 있었던 일본의 나라(奈良)의 법륜사 금당과 5층탑 난간에서 卍字문양의 시원을 찾아 볼 수 있다. 금당의 2층에는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정면과 배면에 4조, 양측면에 3조씩의 파만자 난간을 설치하였다. 그 세부적인 수법은 양측 모서리에 각각 엄지기둥과 가운데에 교두형 첨차와 결구되는 3개의 동자기둥을 세워 돌란대를 받치도록 하고 공간을 분할하여 인자대공이 지방을 받치도록 하였다. 지방과 띠장 사이에는 卍 형의 난간살대를 장부맞춤으로 끼워 파만자 문양을 나타내고 있다. 금당의 서쪽에 놓인 5층탑 2층에는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각 3조씩의 파만자 난간이 설치되었다. 그 세부적인 수법은 양측 모서리에 각각 엄지기둥과 가운데에 2개의 동자기둥을 세워 돌란대를 받치도록 하고 지방과 띠장 사이에는 卍 형의 난간살대를 장부맞춤으로 끼워 파만자 문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금당에서 보이던 지방 아래의 인자대공과 동자기둥에 결구되었던 첨차부재는 생략되어 간략화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기사 3층탑의 2, 3층에도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난간이 설치되었다. 2층

2) 古印度宗教의 吉祥標記, 象火焰上升 佛敎中心 “卍”爲 佛陀 “三十二相”之一. 武則天時 定其讀音 “万”, 漢語大詞典, 第1卷, 漢語代詞典出版社, 1990.12

3) 장기인 선생은 「韓國建築大系」 창호편에서 卍字는 萬字의 옛 글자이고 중국 음으로 “완”이라 하는데서 연유된 것으로 그 모양은 菱花紋樣의 일부분이라 하였다. 필자는 各註 “2”에서 중국 당나라 武則天 시기에 卍字를 万字로 독음하게 되었음을 인용하였는데 卍을 万으로 발음 한 것은 당시 중국 한자 독음인 wan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론의 여지는 있을 수 있고 이 논문에서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완자 발음으로 표기하였다.

에 설치된 난간의 세부적인 기법은 양측 모서리에 각각 엄지기둥과 가운데에 2개의 동자기둥을 세워 돌란대를 받치도록 하였고, 지방과 띠장 사이에는 ㄴ 형태의 난간 살대를 장부맞춤으로 끼워 3조의 파만자 문양난간을 구성하였다. 3층에도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파만자 난간을 설치하였는데 그 기법은 동일하고 탑신의 폭이 줄어들면서 2층에서보다 1조가 줄어든 2조의 파만자 난간을 구성하였다. 또 같은 시기의 산전사지 발굴조사에서 당시의 기둥부재와 거의 완전한 형태의 살창이 출토되어 비상한 관심을 끌었는데 당시 대다수 건물 회랑에 살창이 설치되고 목탑난간에 파만자 난간이 설치된 사례를 볼 때 이 목탑에도 파만자 난간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해당되는 유적과 유물 난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파만자 문양은 비교적 간단한 형태로 난간 양쪽에 수직부재인 엄지기둥과 가운데에 동자주를 세우고 수평부재인 하부의 지방과 중간살대인 띠장, 그리고 상부부재인 두겹대가 틀을 이루고 그 사이에 가로 및 세로 살대를 끼우는 비교적 간단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일본의 근자형 난간(현지 촬영)



2.4. 중국 근자문양의 시원

중국 고대건축 장식요소에서 사용된 근자문양은 동한 시기4)에 만들어진 가형토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낙양지역에서 출토된 이 가형토기에는 2층으로 오르는 계단과 정면 기둥 밖 뒷마루 양측으로 난간이 설치되었다. 2층으로 오르는 난간은 양측으로 동자주 형태의 짧은 기둥을 세우고, 제일 아래쪽에는 이들을 연결하는 긴 가로부재를 대고 그 사이에 2개의 동자주를 세운 후에 그 상부에 돌란대를 돌렸다. 동자주와 동자주 사이는 상-

<표 3> 중국 동한시기 가형토기의 난간(한대건축명기에서 전재)



4) 중국역사에서 秦나라의 뒤를 이은 漢나라는 西漢(BC206- AD8)과 東漢(AD25-220)으로 나누어진다. 서한의 수도는 지금의 서안 서쪽방향인 陝西省 咸陽주변이며 동한의 수도는 河南省 洛陽주변이다. 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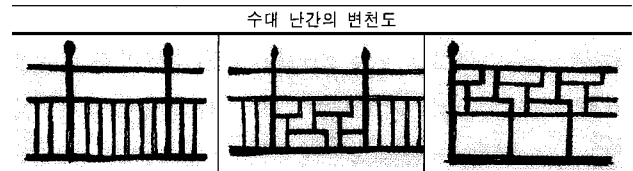
하로 아무런 장식이 없는 난간 살을 끼웠다. 그러나 정면 뒷마루 어칸 양측에 설치된 난간은 동자주를 세우지 않고 여러 개의 난간 살을 서로 연결하여 수직부재인 엄지기둥과 수평 상부부재인 난간띠장 하부 부재인 지방에 끼우는 수법을 구사하여 파만자 형태를 구성하고 있다.

또 돈황석굴에 표현된 수대 난간의 문양은 간단한 살창에서 시작되어 부분적으로 파만자 문양이 사용되고 있으며 또 북위시대 운강석굴 제9굴 전실의 북벽과 서측의 3층 감실상부에도 파만자 난간이 표현되었는데 양측 모서리에 엄지기둥을 세우지 않고 가운데에 2개의 동자주를 세우고 상·하로 ㄴ 모양의 난간살을 난간띠장과 지방에 끼우는 수법으로 3조의 난간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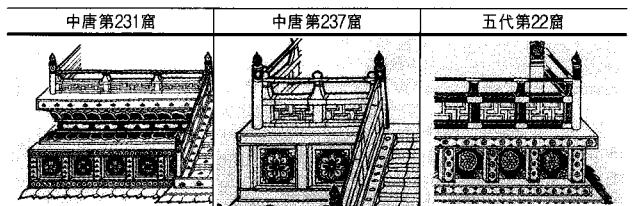
<표 4> 중국 운강석굴의 근자형 난간(현지 촬영)



<표 5> 돈황석굴에 표현된 수대의 난간 (돈황건축에서 전재)



<표 6> 돈황석굴의 근자형 난간 (돈황건축에서 전재)



뿐만 아니라 돈황석굴 중당 제231굴 수미단 윗 단에 설치된 난간은 양측으로 엄지기둥을 세우고 그 윗부분을 연꽃법수로 마감하였다. 난간 가운데에는 2개의 동자주를 세우고 그 사이에는 운강석굴에서와 비슷한 형태의 난간 띠장과 지방에 난간 살을 끼우는 수법으로 3조의 파만자 문양을 넣었다. 이러한 모습은 중당시기에 조성된 제237굴 상층난간에도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2조의 파만자 문양이 설치되어 있고 같은 시기 제 359굴 육각형 각루 난간에도 역시 2조의 파만자 문양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오대에 조성된 제22굴 난간에도 2개의 동자주 사이에 파만자 문양이 묘사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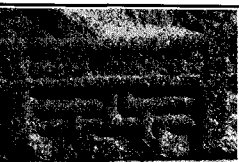



은 高祖로부터 平帝까지 11황제의 陵號가 확인되고 있으며 동한은 光武帝로부터 獻帝까지 12황제의 陵號가 기록으로 전하여 온다.

천진 계현에 있는 독락사 관음각(984년)은 중층건물로 외관상으로는 중층이지만 내부는 통층이 되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하층과 상층 중간에 완층공간인 암층이 있는 독특한 구조이다. 이 건물의 정면 2층 난간에는 양측에 엄지기둥과 가운데에 3개의 동자기둥을 세우고 띠장과 지방 사이에 ㄱ 형태의 난간살대를 끼워 4조의 파만자 난간을 설치하였다. 띠장 위로는 5개의 화병에 꽃을 꽂은 모양을 조각하여 두겹대를 받쳤는데 이 시기 건물로 난간에 파만자를 둔 유일한 건물이다.

이상에서 기술한 卍자 문양의 시원을 정리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주 동궁과 월지에서 출토된 파만자 문양을 최고 오래된 문양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양은 같은 시기에 조성된 실상사 백장암 석탑과 석등, 송림사 출토 금동사리함, 불일사지 출토 금동 5층탑 등의 난간에 표현되면서 좀 더 정형화 된 파만자 모습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양은 같은 시기에 조성된 일본의 법흥사 금당과 중국의 돈황석굴 벽화 등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어 8~9세기 전후에는 주로 불교와 관련된 장식에서 파만자 형태의 문양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고, 10세기에 조성된 독락사 관음각에서는 동자주와 띠장에 살을 끼우는 수법으로 문양이 정형화 되어 가는 모습을 <표 7>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7> 파만자 난간 문양의 변화

시대	문양	특징
통일신라 (8, 9세기)		난간하부에 받침이 없는 간단한 형태
돈황 벽화 (8, 9세기)		난간하부에 받침이 있는 간단한 형태
법흥사 금당 (8세기)		난간하부에 받침이 있는 간단한 형태
독락사 관음각 (9세기)		난간하부와 띠장 위에 장식이 가미된 형태

3. 한, 중 궁궐에 표현된 卍자 문양

제2장에서는 불교유적과 관련된 건물과 사리함에 나타난 문양을 중심으로 파만자 난간의 세부기법과 그 형태의 변천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장수만복(長壽萬福)의 의미를 담아 궁궐건물 및 담장 등에 사용된 卍자의 실례를 들어 그 구성의 의장적 특성과 기법 등을 밝혀 보고자 한다.

3.1. 조선시대 궁궐창호에 표현된 卍자 문양

조선시대의 정궁은 경복궁이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모든 건물이 소실되고 고종대에 복원되었던 건물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침전지역 대부분의 건물은 철거되었고 근정전 일곽과 경회루, 향원정, 자경전 집옥제 등의 건물이 남아 있을 뿐이며 나머지 건물들은 모두 근년에 복원한 것이다.

경회루는 경복궁의 누정 건축을 대표하는 건물이다. 이 건물은 사방으로 튀어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창을 달아 모든 공간이 열려있는 느낌을 준다. 이 건물에 사용된 고창의 문양은 卍자와 아자가 혼합된 형태의 빗살문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을 구사하였다.

집옥제는 고종 대에 건립된 건물로 한때 고종이 서재로 사용한 건물이기도 하다. 이 건물의 외관은 궁궐건물에서 유일하게 측벽에 전돌을 쌓아 청나라 풍의 외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내에는 여러 가지 문양의 창문을 달았는데 정면 고창에는 모두 능형의 4개 무늬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살대로 卍자무늬 한 틀을 만들고 분합문의 상부에는 모두 화려한 卍자무늬 고창을 설치하였다. 이 건물은 청대의 목조건물이 우리나라 궁궐에 지어진 유일한 예이다.

동궐로 불려지고 있는 창덕궁 권역의 낙선재는 원래 창경궁에 소속된 원유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변화와 기교가 넘치는 후원이었다. 이 건물은 보수 시 발견된 상량문에 의하여 조선헌종 13년(1847)에 건립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국상을 당한 후궁들이 거처하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낙선재 지역의 건물은 일제강점기 때 일부 변형이 있었으나 회랑으로 둘러진 그 주변 건물인 석복헌, 수강재, 상량정, 한정당등의 건물은 원형을 잘 유지하여 난간과 창호에는 卍자살을 변형한 문양이 잘 표현되고 있다. 낙선재의 평면구성은 가운데에 2칸 대청과 2칸 큰방을 중심으로 대청의 서북쪽으로는 1칸의 온돌방을 두고 그 남쪽으로 2칸의 마루를 구성하여 남쪽에 돌출된 1칸을 누마루로 꾸미었다. 그리고 가운데 온돌방의 동북쪽으로는 연이은 장방형의 2칸 온돌방을 두어 그 방의 동남쪽 1칸 앞쪽으로 긴 우물마루를 깔아 ㄴ자로 꺾어 대청마루와 온돌방 앞쪽의 뒷마루와 이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청마루와 온돌방의 북쪽으로는 긴 쪽마루를 깔아 모든 동선이 연결되어 있다. 또 방과 대청, 누각은 창문을 열면 모두 열린 공간이 되도록 하였으며 뒤쪽의 쪽마루에서 보면 뜰의 아름다운 화계가 시야에 들어오게 된다. 대청과 동쪽 온돌방 사이에는 일반가옥에서 흔히 볼 수 없는 6분합의 미서기문을 설치하였는데 문의 홈은 상·하인방에 설치되었고 각 분합문에는 대청과 온돌방의 높이가 같아 궁창관은 끼이지 않았다. 완자문의 세부기법은 문 가운데에 살대로 장방형의 틀을 짜 가운데에 원형의 꽃무늬를 구성하고 상·하에는 가운데 보다 더 큰 꽃무늬를 배치하여 문은 3개의 꽃무늬가 중첩된 듯한 느낌

김을 준다. 그리고 문의 상·하에서 각 4개의 살대가 문울 거미에 끼이도록 하여 화려한 미서기문을 구성하였는데 6짝 미서기문이 모두 닫히면 대청과 온돌방 사이는 가림막으로 가려지는 아담한 실내공간이 된다. 이 온돌방의 앞쪽 퇴칸에서 연결되는 문턱에는 궁창판이 있는 2짝의 완자문을 달았는데 문 가운데에 살대로 장구문양의 틀을 짜고 상·하 대청이 되는 응용된 능형을 구성하였고 돌출된 여러 개의 살대가 문울거미에 끼이도록 하였다. 또 대청과 서북쪽 모퉁이 온돌방 사이에는 4분합의 미서기문이 설치되었는데 문의 흠은 상·하인방에 설치되었고 각 분합문에는 대청과 온돌방의 높이가 같아 궁창판은 끼지 않았다. 분합문은 미서기 흠을 따라 좌·우로 열리도록 되었다. 완자살의 세부기법은 문 가운데에서 문살과 같은 두께의 가로살대 2개를 문울거미에 끼우고 卍 卍 형의살대로 응용된 완자도형을 만들어 상·하로 끼우고 또 서로 대칭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들 도형의 문살을 문틀의 네 귀에 배치하여 가운데에서 상·하로 긴 살대를 끼워 문의 전체적인 모습은 능화문양이 상·하에 놓이는 듯 하며 2짝의 미서기문을 양쪽으로 열면 서쪽 행랑채의 세살문이 건물 안으로 끌여 들어오는 듯한 한쪽의 그림을 연상하게 한다.

이 온돌방의 남쪽으로는 또 원형의 월량문을 달아 가운데 2짝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문의 세부수법은 가운데에 가는 살대로 방형의 틀을 만들고 상·하로 U자형 공간을 상·하로 대칭 되도록 하여 문의 네 귀 끝에서 卍 卍 살대가 돌출되어 문울거미에 끼이도록 하였다. 이러한 원형도형에 살대를 활용하여 卍 卍 子를 응용한 미적 감각은 낙선재의 온돌방과 마루공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조형성이다. 또 이 마루와 연결되어 정면으로 돌출된 누 공간은 낙선재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정점이 되며 정면의 세살문과 대비되도록 서측면에 응용된 완자문양과 그 하부 머름틀에서 보여주는 구름문양의 기교는 누 공간을 천상으로 끌어 올리는 듯한 자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기교는 가지런한 정면의 장대석과 축부의 소박한 문살에서 여유를 부리긴 하지만 그 내부에서 꾸며지는 가느다란 살대의 다양한 창살과 그 형태의 기교는 장인의 솜씨를 글로써 다 표현 할 수 없는 고졸한 미학이 흘러넘친다.

낙선재의 화계 후원 뒤쪽에는 당호가 말해주듯이 아담한 한정당이 있는데 이 집은 일제강점기 때 이 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집 앞 뜰에는 괴석분이 배치되어 있

<표 8> 궁궐 卍 卍 창호의 의장적 변천(현지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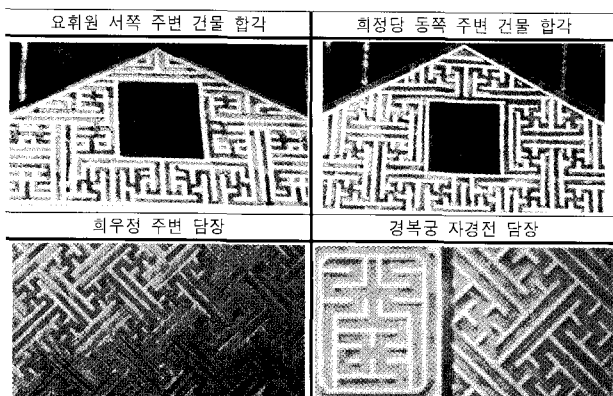
구분	문양	특징	구분	문양	특징
완자 정형		완자 문양의 전형적 형태	창덕궁 낙선재(19세기)		완자 문양의 응용 형태
창덕궁 승재정(19세기)		완자문양의 응용 형태	창덕궁 낙선재(19세기)		완자문양의 응용 형태
경복궁 경회루(19세기)		완자살과 아자살의 혼합형	창덕궁 연경당(19세기)		완자문의 빗살무늬형
경복궁 집옥재(19세기)		완자문의 빗살무늬형	창덕궁 낙선재(19세기)		완자문과 아자살의 응용형
창덕궁 낙선재(19세기)		완자문과 아자살의 응용형	창덕궁 수강재(19세기)		완자문과 아자살의 응용형
창덕궁 수강재(19세기)		완자문과 아자살의 응용형	창덕궁 한정당(19세기)		완자문과 아자살의 응용형

다. 이 건물의 동남쪽 모서리 누각부분과 퇴칸에는 머름틀 위에 화려한 형태의 완자문을 구성하였는데 그 기본적인 살의 구성은 이미 완전한 卍字 형태에서 탈피하여 문양을 수놓은 듯한 응용된 완자문으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그 서 측면에 있는 팔각형 정자인 상량정에도 한 면에 4짝씩의 들게 창문을 달았는데 그 구성은 정자의 난간살대와 어우러지는 조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문양의 흐름은 완자와 아자가 혼용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문양의 흐름은 대조전 앞쪽에 놓인 회정당 측면 창호, 연경당 누마루 창호, 후원의 부용정 창호 등 다수 건물에 나타나고 있어 가로, 세로 살창이 여러 구도의 문양으로 다변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건물에 혼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 문양은 <표 8>과 같이 정리 해 볼 수 있다.

3.2. 궁궐 합각벽과 담장에 표현된 卍字문양

卍字문양이 상징하는 길상운해의 상징성은 건물의 창호뿐만 아니라 지붕의 합각벽에도 사용되었다. 창덕궁 대조전 서쪽 회랑 요취문 모퉁이 건물 합각벽 가운데에는 “喜”자가 겹치는 문양을 두고 그 주변으로는 살대를 이용하여 卍字문양이 연속되는 구성으로 벽체를 마감하였다. 그리고 합각벽과 어우러지는 목끼연과 지붕 끝 암, 솟기와는 왕실의 장수를 기원하는 거미문양과 “壽”자 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또 침전인 대조전 앞쪽의 회정당 동쪽 모퉁이 건물의 합각벽에도 “喜”자를 기하무늬로 도상화하고 가느다란 살대로 卍字문양이 연속되는 합각벽을 구성하였는데 이러한 도상은 모두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문양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경복궁 대비들의 침전으로 사용되었던 자경전 주위로는 아름다운 꽃담을 두르고 그 북편에는 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 굴뚝을 만들고 장수를 상징하는 문양을 표현하였다. 또 창덕궁 회우루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2벌대 장대석 위의 담장에도 45° 방향으로 卍字문양을 넣고 그 상부는 암수기와로 마감하였는데 기와는 壽, 喜, 鳳凰, 거미 등의 문양을 새겨 넣었다. 그러나 낙선재 후원의 한정당 주변 담장에서는 전돌로 간략화 된 卍字문양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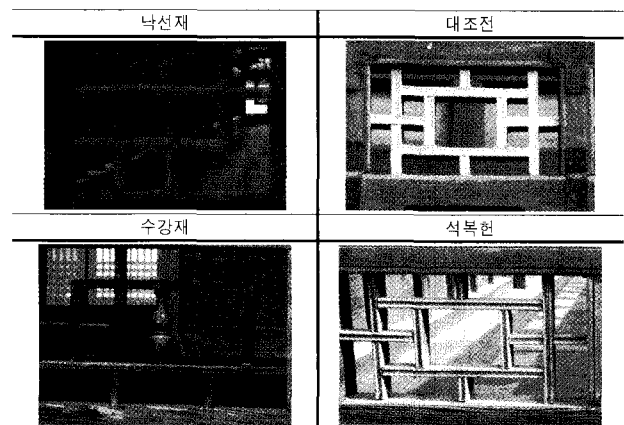
<표 9> 낙선재 주변 건물 합각벽과 궁궐 담장의 卍字



3.3. 궁궐 부속건물 난간의 卍字문양

난간의 동자기둥 사이에 가느다란 살을 짜서 장식한 난간을 교란이라 부르고 살의 모양에 따라 완자, 아자, 빗살교란 등으로 부르고 있다. 또 이들 교란도 아래쪽에 궁창판을 두고 위에 살을 짜서 넣은 것과, 살만 짜서 넣고 그 위쪽에 하엽, 호리병, 동물상, 소로 난간 등을 받쳐 난간 두겹대를 낸 경우도 있다⁵⁾. 교대의 난간 장식은 제 2장 2절에서 주로 과만자 형태로 구성되었음을 밝혔는데 본 절에서는 궁궐 부속건물에 사용된 완자형 난간의 구성과 그 의장적 특징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창덕궁 낙선재의 누각 서측난간은 마루 귀틀위에 지방을 놓고 그 양쪽으로 엄지기둥과 난간두겹대로 그 틀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띠장의 중간에 연키맞춤으로 1개의 동자주를 세워 띠장과 두겹대 사이는 하엽을 받쳤으며 그 아래 띠장과 살대사이에는 춤이 낮은 하엽을 끼워 장식화 하였고 가로, 세로 살대는 지방과 엄지기둥에 짜이도록 하였다. 이러한 구성법은 낙선재와 연결된 석복헌의 동쪽 뒷마루에도 적용되지만 여기서는 난간 틀 중간에 호리병을 끼워 장식하였다. 그러나 그 동측으로 연결된 수강재의 난간에는 양측 엄지기둥 사이에 가운데 1개의 동자주를 세워 아자교란으로 간략화 시키면서 살대에는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았다. 또 대조전 일곽에 사용된 난간은 모두 평난간으로 지방 위에 동자주를 세웠는데 띠장 위로는 간략화 된 하엽을 끼웠고 모두 아자교란으로 마감하였다. 이러한 난간의 다양한 구성기법은 창덕궁 후원의 존덕정, 관람정, 애련정, 태극정, 취한정, 소요정 등 여러 건물에서 응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당시 장인들의 세련된 솜씨를 엿볼 수 있다.

<표 10> 창덕궁의 난간



3.4. 중국 궁궐 침전건물에 응용된 卍字문양

중국 북경의 고궁은 명·청대 황제의 궁전이다. 명대 영락(永樂)5년(1407)에 시작되어 전국의 장사를 모으고 2, 30만의 민공(民工)과 군공(軍工)을 징발하여 14년에

5) 장기인, 韓國建築大系 V, 木造, 善成閣, 1995, p.359

걸쳐 궁궐이 완성되었다. 명나라가 멸망되고 청조가 나라를 세웠지만 일부 부분적인 증건과 개건이 있었을 뿐 전체적인 배치는 기본적으로 변동이 없었다. 황성 중의 궁성은 남북의 길이가 90미터이고, 동서 폭은 760미터로 사면에 모두 높고 커다란 성문이 있다.

명·청 고궁의 설계사상은 황제의 권력을 구현한 것으로, 전체적인 계획과 건축 형태는 전통적인 종법예제와 권위를 상징하는 정신적 감화력이 실제 사용기능에 비해서 더 중요하였다. 정제되고 엄숙한 기개를 나타내기 위하여 주요한 건축은 모두중축선 상에 엄격한 대칭으로 배치하였고 그 가운데 조회(朝會)를 거행하는 태화전이 중심이었다. 그리고 그 북쪽의 침전구역인 건청궁, 교대전, 곤녕궁은 명대의 황후가 거주하던 곳이며 이 궁전의 양측으로 동서육궁과 영수궁, 자녕궁 등의 부속건물이 있는데 모두 황족의 생활공간이다.⁶⁾ 태화전 동측에 있는 동배전 벽은 황실의 만복을 기원하는 卍자형의 정교한 불발기 장식이 있다. 실내에는 가운데 2쪽의 卍자창을 중심으로 양측에 3쪽의 卍자창을 배치하여 정면의 벽체를 구성하였다. 여기에 표현된 卍자창의 틀은 가운데에서 卍자가 상, 하, 좌우에서 4개로 연귀맞춤 되었고 그 끝의 양측 살대를 상하로 연결하여 상부와 하부에서는 2개의 卍자가 서로 마주보도록 짜 울거미 안쪽의 덧흙대에 끼이도록 하였다. 문틀은 모두 연귀맞춤으로 되었으며 하부의 궁창판과 卍자살창 사이에는 포도문이 조각된 한쪽의 궁창널을 끼워 화려함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또 이러한 卍자 문양은 약간씩 변형되면서 침전 동쪽

의 이화현, 권근제 난간 등 수많은 내전 건물의 실내장식에 활용되어 황실의 장수만복을 기원하는 문양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속건물의 문 주변 상부의 실내장식에 부분적으로 사용 되하였으며 때로는 판벽 가운데에 장수를 상징하는 “壽”자 문양을 새기고 45°방향으로 살대를 구성하여 卍자 문양을 번갈아가며 배치하고 네귀에는 모두 인자 모양의 “壽”자를 놓고 그 주위로 卍자를 새기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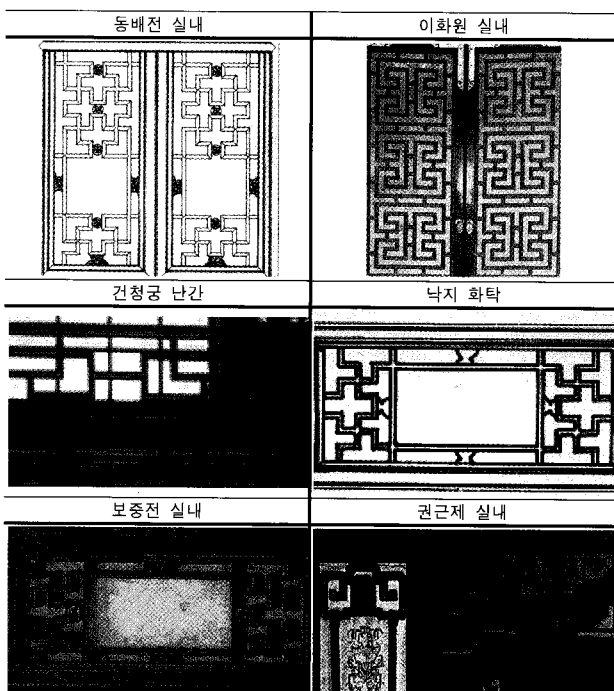
3.5. 중국 원림건축과 민가에 응용된 卍자문양

명, 청대 강남의 수향(水鄉)으로 불리는 절강성 소주에는 수많은 원림이 조성되어 이들 건물의 내부장식과 누창(7)에는 다양한 형태의 문양이 사용되었다. 그중 절정원에는 서로 다른 구성의 7개 卍자문양이 보이는데 창 가운데 인화문 형태의 둥근 무늬를 두고 45° 방향으로 살대를 구성하여 네모서리에서 서로 대칭되게 卍자를 배치하고 모서리 창틀에서는 둥근 반형의 살대로 창살에 맞닿게 하였다. 이와 유사한 구성으로 창 가운데에 긴 종모양의 공간을 만들고, 상·하로 살대를 연결하여 네모서리에서 卍자를 형성하고 네 귀에서는 卍 형태의 살대를 창틀에 끼이도록 하여 전체적으로는 진술한 창호에 비해 좀더 복잡한 느낌을 준다. 또 다른 구성으로 창 가운데 卍자를 배치하고 45° 방향으로 긴 살대를 구성하여 마지막 네 모서리에서 卍자를 만들어 이들 살대를 창틀에 끼우기도 하였다. 또 살 전체를 卍자로 구성하여 마지막 살대를 창틀에 연결하는 수법의 창호도 있다. 뿐만 아니라 살 전체를 교살로 구성하고 네모서리에서 X자로 창의 중심을 잡아 4등분된 작은 공간에서 45° 방향으로 卍자를 배치하기도 하였으며, 또 다른 구성으로는 창 가운데 8각 원형을 두고 그 상·하로 살대를 연결하여 각 모서리에 卍자를 배치하였다. 또 창 가운데에 卍자 공간을 만들고 살 전체를 卍자로 구성하는 약간 복잡한 누창도 있다. 이들 卍자 이외에도 소주의 창랑정, 사자림, 유원, 우원 등 여러 정원에는 각양각색의 화창과 창호를 사용하여 원림건축의 공간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또 강남 절강성 무의현 광동촌 귀족주택 창호에서도 궁창판 부분에 아자살 문양을 붙이고 그 위로 한 판의 卍자창을 끼웠는데 양측의 투각된 능형문양과 함께 매우 고졸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같은 마을의 한 민가 정면 창호에서도 卍자문양이 사용된 예를 찾아 볼 수 있었는데 여기에 사용된 도안은 궁궐과 다르게 창호 가운데 동자가 기린을 타고 있고 그 주위로 연귀맞춤으로 연결되는 45° 방향의 살대를 끼워 卍자를 구성하는 특이한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7) 漏窓은 중국 원림건축에서 건물과 건물을 이어주는 회랑의 외벽 상부에 창을 내어 다양한 형태의 문양으로 창살을 만들어 내부에서는 바깥이 보이지만 외부에서는 원림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처리한 창의 일종을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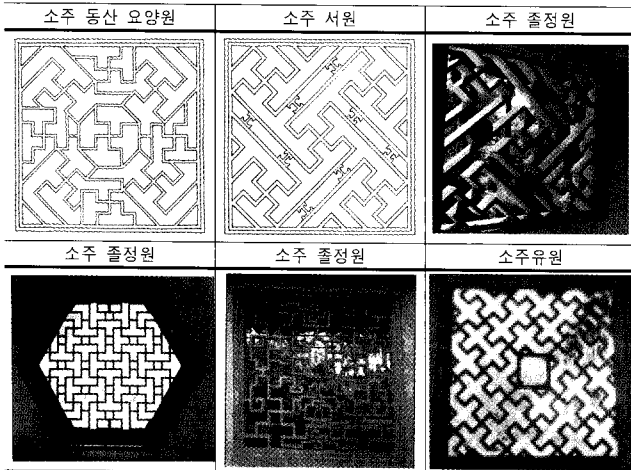
<표 11> 중국 자금성의 卍자문양 (자금성 궁전 건축장식에서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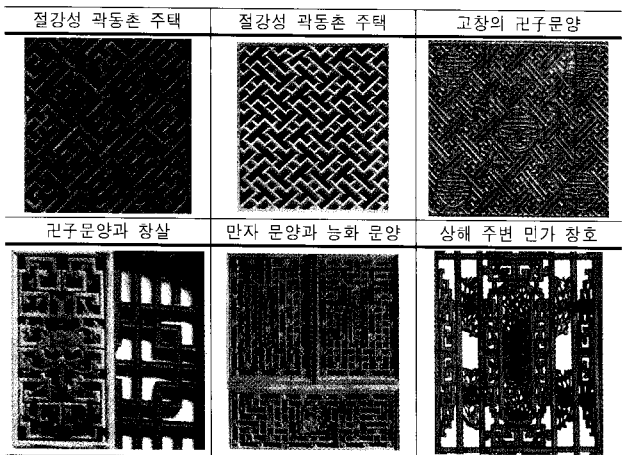
6) 劉敦楨, 中國古代建築史, 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78.3 北京

또 유원촌의 유희당 정면 창호에서는 연귀맞춤 살대로 구성되는 卍字를 만들어 네 귀에 조그마한 꽃살을 끼워 卍字 한 틀이 되도록 하였고, 이 한 틀을 45° 방향으로 틀어 창호전체를 메웠다. 이러한 卍字창 이외에도 절강성 주변의 민가에서는 화려하고 다양한 형태의 문양이 사용되어 정교하고 아름다운 창살의 기교를 보여주고 있다.

<표 12> 강남 원림의 卍字문양(강남고건축장수장식도전에서 전제)



<표 13> 강남 지역 민가의 卍字 창호(향토문화에서 전제)



卍字문양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 발전 되었으며 특히 친환경적인 한지와 더불어 전통건축의 실내·외장식에 빼 놓을 수 없는 구성요소가 되었다. 요즘 들어 새로운 신한옥 바람이 불고 있다. 卍字문양 뿐만 아니라 전통문양 속에 살아있는 선인들의 미적 감각을 재활용 하는 응용의 지혜도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

4. 결론

1. 삼국시대의 卍字문양은 불교의 상징적인 문양으로 사리장엄구와 사찰건축의 난간장식에 사용되었지만 그 문양이 뜻하는 “길상운해”의 기원적인 의미를 인간의 장수만복과 연계시켜 점차 궁궐과 민간건축에서도 널리 사

용하게 되었다.

2. 우리나라 卍字 문양의 시원은 그 문양을 흠여 놓은 파만자 형태로 나타나지만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卍字를 중국어 발음인 wan”으로 음역 하여 완자문양이라 통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궁궐 침전건물 등에 나타나는 완자창호는 卍字의 정형에서 응용된 문양이 많아 매우 다양하며 궁궐의 부속 건물과 원림, 민가 등에 다채롭게 활용되고, 19세기 이후의 창덕궁 낙선재 등에서는 卍字와 혼용되어 더욱 화려한 문양으로 변화되었다.

4. 완자문양이 창호 이외의 담장, 회랑 등에 널리 활용되면서 그 문양도 정형에서 벗어나 빗교란 형태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궁궐 건물의 난간은 대부분 그 형태가 변형된 완자교란, 빗살교란, 아자교란 등이지만 난간살대, 하엽, 호리병 등의 장식물과 어우러져 전통건축 의장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참고문헌

1. Frampton, Kenneth, Modern Architecture ; a critical history, 3rd ed., Thames & Hudson, London, 1992
2. Clément, Élisabeth 외 3인, Pratique de la Philosophie de A à Z, 철학사전-인물들과 개념들, 이정우, 초판, 동녘, 서울, 1996
3. Giedion, Sigfried, Space, Time and Architecture, 공간·시간·건축 2, 최창규, 중판, 산업도서출판공사, 서울, 1990
4. Golding, John, Cubsim, 큐비즘, 황지우, 초판, 열화당, 서울, 1988
5. Joedicke, Jürgen, 건축의 공간과 형태, 윤재희, 초판, 세진사, 서울, 1995
6. Lambert, Rosemary, The Twentieth Century; Combridge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Art, 20세기 미술사, 이석우, 초판, 열화당, 서울, 1986
7. Norberg-Schulz, Christian,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실존, 공간, 건축, 김광현, 4판, 태림문화사, 서울, 1994
8. Scruton, Roger, The Aesthetic Understanding, 미학의 이해, 김경호·이강호, 초판, 기문당, 서울, 1991
9. Van de Ven, Cornelis, Space in Architecture, 건축공간론, 정진원·고성룡, 초판, 기문당, 서울, 1988
10. Zevi, Bruno, The Modern Language of Architecture, 건축의 현대 언어, 이해성, 초판, 세진사, 서울, 1992
11. 井上充夫, 建築美論, 건축미론, 임영배·신태양, 초판, 도서출판 국제, 1994
12. 김태국, 건축공간의 창조와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81
13. 최근원, 건축공간론의 발생과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82
14. 이대암, 시간예술로서의 건축, 건축 통권196호, 1995.9
15. 이용재·윤도근, 미의식 체계 변화에 따른 건축의 기계미 표현 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통권 제109호, 1997.11

[논문접수 : 2011. 10. 24]
 [1차 심사 : 2011. 11. 17]
 [게재확정 : 2011. 12. 09]